

# 세상 하나뿐인 나만의 반지 만들어볼까?

**리빙 & 아트**  
주얼리 공예



순은에 열을 가하면 모양을 잡기 쉽다.



하트 무늬가 돋보이는 순은 커플링.



이니셜을 새긴 은팔찌.



여러가지 도구를 이용해 액세서리를 만들고 있는 주얼리 디자이너 염은경씨.

광주 대인시장 내 주얼리 공방  
**‘은누리’ 염은경 디자이너**  
목걸이·반지·팔찌 등 주문 제작  
2~3명씩 2시간 만들기 체험도

만 쉽게 찌그러질 수 있으므로 반지는 최소 1.7mm 이상의 두께로 만들어야 모형을 쉽게 변하지 않는다. 손금으로 만들고 싶다는 사람도 간혹 찾아오지만 고가인 순금은 초보자들이 체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은 액세서리를 만드는 건 언제든 가능하지만 특히 크리스마스나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등 연인들을 위한 날이면 급격하게 문의가 늘어난다. 대부분 커플용 반지를 만들려는 연인들이다. 한번에 2~3명정도만 체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하는게 좋다. 체험 시간은 대략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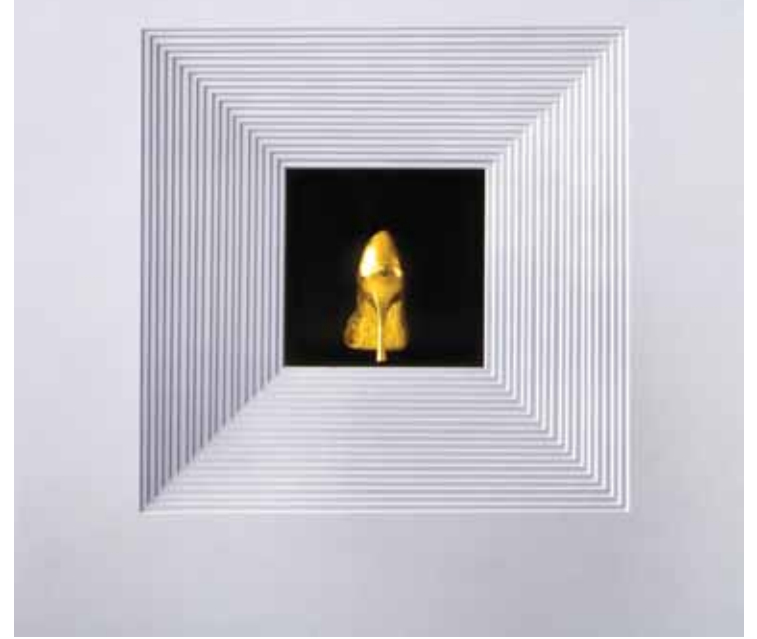
“공방은 대체적으로 주얼리공예에 비해 완성된 샘플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대신 유통 과정이 없기 때문에 가격은 좀 더 저렴하지요. 원하는 디자인을 그려오면 함께 의견을 모아 새롭게 디자인을 할수도 있고 블로그를 보고 선택해 오도 좋습니다.”

반지를 만들기 위한 재료는 간단하다. 순은과 몇 개의 공구면 된다. 반지를 만들때는 먼저 원하는 디자인을 고른후 손가락 사이즈를 재고 재단을 한다. 그리고 모양을 잡아가면서 두드리고 줄질을 하며 매끄럽게 손질한다. 은 세공을 할 때 필요한 작업중 하나가 불에 가열하는 것이다. 열을 받아 부드러워진 은은 둥그렇게 구부러 리 모양을 만들 때 필요하다. 순은은 열을 직접 받으면 더 하얗게 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작업이다. 반짝반짝 빛이 나는 유광이나 투박한 무광을 선택할 수 있지만 스크래치가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에 무광을 권유하는 편이다. 모형이 갖춰지면 원하는 문구나 이니셜을 새겨넣을 수도 있다.

모든 주얼리가 그렇겠지만 은으로 만든 액세서리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공기중에 오래 노출되거나 물이 닿으면 산화가 되는데 본래 흰색에 가까웠던 은색이 노란색으로 시작되서 흑색으로 변색이 된다. “은 액세서리는 외출복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잠을 잘 때 벗어두고 씻을 때도 벗어두고 출근할 때 착용해서 퇴근하고 벗어두는 외출복 같은 거지요. 은은 날마다 착용하는게 중요해요. 화장대에 방치해두면 공기중에 산화되어 색이 변화가 옵니다. 오랫동안 착용하지 않을 때에는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지퍼백에 보관해두는게 좋아요.”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이매리 작가 그리스에서 개인·단체전



‘Genesis’

9월~11월 8일 사진·회화 15점

지역 출신 이매리 작가가 잇따라 그리스에서 개인·단체전을 갖는다.

이 작가는 9월부터 11월 8일까지 그리스 데살로니키 도노폴로스 인터내셔널 파인 아트(DONOPOULOS International Fine Arts)에서 개인전을 열고, 16일부터 11월 16일까지는 아테네 사이프러스 갤러리(Cyprus Gallery)에서 단체전에 참가한다.

개인전에서 이 작가는 회화와 사진 작품 15점을 출품한다.

이 작가는 ‘하이힐’이라는 단일 소재를 이용해 자기 존재와 실존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작품에 담았다. 또 회화작품 ‘제네시스(Genesis)’ 시리즈를 통해 인간의 탄생과 죽음, 도시의 생성과 소멸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작품의 배경이 되는 흰색 박스는 현대 산업사회를

뜻하며 어두운 중앙 부분은 추상의 세계를 의미한다.

그리스 갤러리 측에서는 이 작가의 작품세계가 여성의 사회적 위치나 정체성을 다룬 기존 전시와 달리 인간 전체에 관한 이야기로 영역을 확장한 것으로 보고 주제를 ‘패러다임의 확장(Expanding the Paradigm)’으로 잡았다.

이 작가는 이이남 작가와 함께 지역 최초로 2015 베니스비엔날레 특별전에 참여했으며 4월에는 그리스 크레타현대미술관에서 ‘진실 속으로’를 주제로 초대전을 가졌다.

목포대 미술학과와 조선대 대학원을 졸업한 이씨는 국내 뿐 아니라 뉴욕·베이징 등에서 개인전 26회를 열고 300여회의 단체전에 참가하는 등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문의 010-9070-6874.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정유승 개인전 ‘유블랜드’ 9~18일 ‘미테-우그로’

대인예술시장 아트스페이스 ‘미테-우그로’가 9~18일 정유승(25) 작가의 첫번째 개인전 ‘유블랜드’를 연다.

정 작가는 다른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무수한 꿈을 지녔지만 실현할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자신의 꿈을 대신 이뤄줄 공간인 ‘유블랜드’를 창조해냈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청년들에게 대리 만족을 선사하고 그들을 위로한다. 작업을 통해 꿈을 시각화시키고 간접적으로 이를 성취해 나감으로써 꿈꾸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작가의 굳은 의지가 엿보인다.

정씨는 자신의 얼굴 사진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작품에 직접 출연하며 꿈을 표현했다. 고희의 ‘이들의 침실’을 패러디한 작품 ‘고흐’에서는



‘해너 유블랜드’

직접 고희로 등장했고 ‘우주인’에서는 우주복을 입고 3차원 공간을 떠다니며 즐겨워하고 있다.

정씨는 전남대 조소과를 졸업하고 대인시장 내 작가들의 연합모임인 ‘D.A.오라’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문의 010-6680-983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사리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프랑스가구 런칭



이태리가구, 소품



명화가구

**홍스케이스** SINCE 1990

www.hong79.com

광주 동구 장동 58-15

가구빌딩 7개층

☎ 1899-0240